

2020년 11월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 기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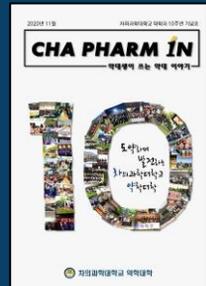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목차



01. 축사
02.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
03.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년의 발자취
04. 차팍인이 만난 사람
05. 숫자로 알아보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10년
06. 차약이에게 물었다! 10주년 기념 10문 10답
07. 10년의 발자취 - 차약인의 모습
08. 제 1회 차팍인 백일장
09. 차약 앙케이트: 10주년 기념 별별 시상식
10. 캠퍼스 생활 전격비교: 그때는 그랬지
11. 십자말 풀이 & 퀴즈
12. 편집부의 말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김태환 (약학과 16), chapharmin@naver.com

편집위원/취재팀

김태환 (약학과 16), 태소정 (약학과 16), 박지수 (약학과 17)
전상원 (약학과 16), 김성연 (약학과 16), 이현주 (약학과 17)
정영운 (약학과 16), 오윤정 (약학과 17), 원재웅 (약학과 18)
김은혜 (약학과 16), 손효정 (약학과 17), 신민철 (약학과 18)

발행회차

2020년 6호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약학대학 10주년 기념 축사

약학대학 설립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대학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커다란 의미를 간직한 시간입니다.

빠르고 강한 대학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은 지금, 23살 빛나는 청춘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으로 출발했던 우리 학교에 10년 전 약학대학이 설립되면서 명실공히 의생명과학에 특화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차 의과학대학은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학대학은 우리 대학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이제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대 특유의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과 전국 1등이라 할 만큼 학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약대 교수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약대 동문들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지금 우리 캠퍼스의 학생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자기 삶의 비전을 만들어가며,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대생들이 술선수범하여 우리 대학만이 실시하고 있는 학생행복인증제도(행복 배움, 채움, 나눔)에 적극 참여하시길 차체에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대학생활을 통해 키워진 긍정의 힘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더욱 행복해질 수 있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복 약사가 되어 우리 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우리 약대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약대 교수님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차 의과학대학교 총장 이훈규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19 사태를 두 학기째 겪고 있습니다만 교정에는 단풍과 함께 가을의 정취가 깊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진 교육환경 속에서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소통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학생과 교직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졸업 동문 및 학부모님들의 성원으로 이제 전통이 확립된 우수 약학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 약학대학은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CHA Health System을 활용한 실무교육과 해외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용으로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졸업 후 진출 분야의 다양화를 통해서 앞으로 각 전문 분야에서 많은 리더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약학대학의 연구역량 또한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여 앞으로 더욱 가시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약학대학이 재도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하고 졸업 동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교로 발돋움하면서 차의과학대학교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차약인 모두가 참여하는 2020 CHA Pharm Day와 5학년 White Coat Ceremony를 특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약학대학의 미래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한적인 행사로 진행되겠지만 차약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약학대학의 과거 및 현재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약학대학의 10년 역사를 종합하는 연보가 12월 중에 발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발행될 종합약학연구소보와 함께 약학대학의 미래 연구역량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개교 1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학생, 졸업 동문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지난 10년간 약학대학 발전에 동참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학대학 개교 10주년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 11. 06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장 서영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

고광호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초대학장님

약학대학 개교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설립 당시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지역사회와 산업체 등에 기여하여 국가의 역동성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앞으로 더욱 빛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설립 초기의 어려웠던 여건을 이겨내고 약학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까지 갖추면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 우수대학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의 발전상을 기대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민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지금 학생, 교수 여러분은 위축되지 말고 나름대로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여러분과 교수님들의 건강과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손동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손동환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설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의 노고 속에서 학교가 잘 정착하였고 발전의 기틀을 잘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는 의학·보건 분야로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 캠퍼스는 연구와 임상이 한데 어우러져 아주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되는 통합 6년제는 현장의 실험과 연구 경험을 통해 임상적 역량을 갖춘 제약 바이오의 인재 양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강점은 통합 6년제에서 크게 빛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선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입니다. 먼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1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래 약사고시 100% 전원합격이라는 뚜렷한 성과와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 배출로 전통과 명성을 갖춘 세계 수준의 약학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매진해 오신 학교 및 교수진, 학생들의 노고에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남시약사회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2013년부터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약사회는 언제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과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10년의 발자취를 초석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성과 함께, 명실상부한 약학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인숙 분당차병원 약제부장님

약학대학의 첫 졸업생부터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약학대학 설립 10주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분당차병원에서 실무실습을 거쳐간 학생들이 100명을 넘었는데 약제부장으로서는 현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약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약학 인재양성에 앞장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지선 강남차병원 약제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차병원 약제팀장 이지선입니다. 약학대학 10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강남차병원에서는 지난 수년간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의 많은 좋은 학생들이 약제팀 실무실습을 거쳐 능력 있는 약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조제, 투약 및 다양한 임상 업무에 대한 실무실습을 지도하였고, 약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약학대학의 훌륭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약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일산차병원 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약제과장 김현진입니다. 일산차병원은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4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여성종합병원으로 2019년 12월 개원했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글로벌 여성아동전문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약제부는 다양한 원내서비스 및 처방조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명의 학생들이 실무실습에서 많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내년에도 더욱 좋은 실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강남차병원에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실무실습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잠재적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더욱 훌륭한 약사로 성장하는 것을 계속 응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약학대학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ELEBRATING 10TH ANNIVERSARY

정기원 학과장님

차약인(CHA藥人)의 값진 노고와 추억이 쌓여 소중한 10년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차대 약대 여러분, 진심으로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우수한 연구역량은 우리 약대의 경쟁력이 되었고, 차약인의 끈끈한 정과 나눔은 우리 약대의 고유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된 또 다른 10년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약학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교수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학과는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청소년기 즉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학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학과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옆에서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교수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년 동안 교수님들과 학생들 및 조교들 모두 고생한 만큼 차약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장한 모습으로 50주년,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길 바라며, 차약대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의 약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약학계의 주인공들로 활약하길 기도합니다.

김진경 교수님

격세지감의 10년간 함께한 제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할 10년도 여러분들과 새로운 가족들을 기다리며 감사한 나날을 기대합니다.

나영화 교수님

우리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벌써 1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에 전담 교육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처음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교수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노력을 근간으로 우리 약학대학은 지금의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약학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우성 교수님

약학의 불모지(?) 포천에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한 성체가 되기까지 맞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지난 10년처럼 교수님, 학생들의 하나 된 마음으로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약학대학 소통의 매개로 자리 잡은 차팸인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손현순 교수님

해솔마당 초록 잔디에서 학생들과 함께 파란 가을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여전히 설레는 일입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이 살아있는 포천캠퍼스에서 상큼 발달한 시간을 보낸 차대 약대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버거운 공부 해내느라 수고한 학생들과, 학생들이 좋은 약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느라 수고한 구성원들에게, 모두 감사해야겠습니다. 좋은 품성 1등 약사를 양성하는 자랑스러운 차대 약대를 꿈꾸며, 차대 약대생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심미경 교수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운 좋게 첫 졸업생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10주년 기념식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학생들과 교수님들, 행정실의 노력으로 우리 약대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며 우리 약학대학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The achievements of an organization are the results of the combined efforts of every individual.
Happy 10th Anniversary!!

양영덕 교수님

설레는 마음으로 포천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던 2011년 어느 날 비가 내리던 그 날의 캠퍼스 풍경을 잊지 못합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예쁜 건물 몇 채 그리고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직선의 거리를 초대 학장님이셨던 고광호 학장님의 바쁜 걸음을 따라가느라 쳐다볼 겨를도 없이 애매히 숨만 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벌써 10년이라니... 그 사이 약학대학 건물(지금의 과학관)이 들어섰고 현암기념관 뒤로는 학생들 기숙사가, 정문 옆에는 포천이 훤히 내다보이는 미래관이 그리고 과학관 앞으로는 넓고 길게 잔디가 깔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길을 지나다닌 수많은 걸음들이 오늘 우리 약학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또 다른 걸음들이 채워가겠지요. 우리의 지나온 10년이 미래를 향한 좋은 걸음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유희 교수님

과학관도 없을 때 포천에 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군요... 그동안 만난 1기부터 10기까지의 학생 모두가 지난 10년의 주인공입니다. 더욱 응비할 우리의 20년, 30년을 기대하면서 약학대학 10주년을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조혜영 교수님

간간히 피부를 스치는 바람에서 가을의 기운이 느껴져 포천캠퍼스에도 풍요로운 가을날의 향연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신설 대학으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약학대학 가족들의 힘과 학교에 대한 애정이 빛났던 지난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전문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 높은 학구열에 대응하고 다변화된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학생들의 역량은 우리 약대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10주년을 계기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선배들의 후배에 대한 큰 사랑과 약대 교직원들의 애정 어린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 약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최현진 교수님

우리 대학교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였기에 지금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학교,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믿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CELEBRATING 10TH ANNIVERSARY

배건희 조교님

안녕하세요. 약학대학 행정실 배건희 조교입니다. 약학과가 2011년에 설립되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엔 '약학과'하면 열람실을 가득 수놓던 약대과잠과 미래관 앞에서 족구 경기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놀 때 잘 놀고 할 때 잘하는 모습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학과 행정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10년 역사에 잠깐이지만 멋진 학생분들과 함께 지내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훈 09학번(1기)

차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대와 걱정으로 약대 생활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동문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지금껏 약대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 같아 기쁩니다. 코로나로 매우 힘든 시기인 만큼 모든 분들 잘 이겨 내시고 추후 필드에서 선후배로 만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초롱 10학번(2기)

10학번으로 입학하였던 저라서, 10이라는 숫자가 더욱 와닿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추억과 지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느새 그런 공동체가 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모습이 매우 멋지고 뿌듯하네요. 치열하게 배우고 치열하게 즐기는 시간이 다음 10년, 또 그다음 10년에도 쌓여서 더욱 의미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0주년을 함께 쌓아 올린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천성문 11학번(3기)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중에 정겨운 학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4년 차지만 여전히 동기들과 매일같이 연락하고 있고, 종종 만날 때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학교에서 보낸 4년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가깝게 느껴지는데 어느덧 신설이었던 우리 학교 약학대학 설립이 10주년이네요. 신설이라 부족하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10년 안에는 교수님을 비롯한 차약인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졸업생인 저희들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차약 파이팅!

전성률 12학번(4기)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약학대학 4회 졸업생 전성률입니다. 사회에서도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정도와 진실된 마음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되길 기원하며,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박민우 13학번(5기)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새 학기라는 설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희석되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을 근심 없이 즐겁게 보냈기에 지금도 학교가 그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교수님들과 선후배님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박찬섭 14학번(6기)

먼저 6기(14학번)의 대표로 이렇게 우리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10주년을 축하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보다 훨씬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교를 볼 때면 더할 나위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포천이라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량 있는 교수님들을 필두로 다양한 개성의 학생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강점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개성 있는 모습으로 학교 안팎으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우리 차약인들의 멋진 행보가 계속되길 바라며, 우리 차대 약대의 10주년을 빛나게 해준 모든 차약인들에게 6기를 대표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최동현 15학번(7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양한 실습을 하며 점차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 누구보다 앞에 나서서 치열하게 역량을 펼치고 노력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 뒤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교수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 학교가 이만큼 꽃피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노력 덕분에 어느 곳에서든 저를 비롯한 저희 동기들 모두 당당한 차약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20년 그리고 30년에는 저희가 밟고 나서 후배님들이 더욱 학교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후배님들의 든든한 발돋움판이 되겠습니다. 다가올 10년, 그 다음의 20년 동안에 우리 학교는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의 즐거웠던 추억과 교수님, 선배님, 그리고 동기들과 나누었던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기까지 일구어 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유진 16학번(8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에 설립되어 현재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그 속에 많은 차약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선배님들께서 닦아 놓으신 길들 덕분에 지금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노력에 글로나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빛이 난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나길 기원합니다.

최다빈 17학번(9기)

약학대학에 입학하고 푸른 잔디를 밟으며 동기들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동기들과 소통하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10주년의 역사 속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쓰일 약학대학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활기차고 훌륭한 약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승연 18학번(10기)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매우 설렘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아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약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실감하게 되었던 한 학기를 보내면서, 약학도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학대학을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약학대학 출신의 약사 선배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약학대학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년의 발자취

첫 신입생 입학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초대 학장(고광호 학장) 외 교수 임용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신설되고 초대 학장인 고광호 학장을 비롯하여 교수 일동이 임용되었다.

전상원 기자



2012

과학관 완공

지금의 과학관이 완공되어 약학대학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었다.

2013



2014

차바이오컴플렉스 개원

차바이오컴플렉스가 개원하여 연구시설, 교수 사무실 등이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2대 학장(서영거 학장) 취임

2대 학장으로 서영거 학장이 추대되었다.

첫 차팜데이 개최

약학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졸업생이 본인의 진로를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약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차팜데이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016

2015

첫 졸업생 배출 및 전원 국가고시 합격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7

약초원 개원

약대의 상징 중 하나인 약초원이 개원하였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GRR) 사업선정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를 위한 응용기술 개발, 지역산업 육성과 연관되는 연구 수행 등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지원사업인 GRR에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선정되었다.

2018

2019

2020

국가고시 6년 연속 전원합격
현재까지 모든 졸업생이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4학년 박한솔 선배님

대학병원 야간전담약사 및 작가

Q1. 현재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위치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야간 근무만 하는 야간전담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책을 쓰고, 글을 기고하는 출간 작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Q2. 작가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도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앞으로 계속 관련 일을 해 볼 생각입니다.

Q3. 이 실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어떤 역량과 소양이 필요한가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 이 직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약사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글을 쓰고, 지식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겸업이 가능한 직업이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최종적으로 출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도,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4. 이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단점은 작가라는 직업은 소득이 안정적이기가 힘듭니다. 드는 품과 시간보다 성과물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업 작가가 아니라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둔 글은 생각보다 생명이 길어서, 매일매일 일을 하며 버는 소득과는 별개로 소소한 연금이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 출간

Q5.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루는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출판사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책 내용에 관해 질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더니, 제 책을 읽으시고 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며 굉장히 칭찬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분이 재밌게 읽으셨다며 칭찬을 해주셨대서 뿌듯했었습니다.

Q6. 졸업하신 해에 책을 출판하셨는데, 학교 재학 때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5학년 때부터 청소년 교양 잡지 <고교독서평설>에 관련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그러다 6학년 때 출간 제의를 받고, 기존에 기고한 글들을 다듬고 새로 글을 쓰면서 1년 정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습 중에도 퇴근하고 글을 쓰고, 졸업시험 직전까지 원고 마감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습니다.

Q7. 책에 언급되는 15가지 주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학사(史)적으로 중요한 약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약이 따로 있다는 것이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약들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약 위주로 골랐습니다.

Q8. 작가 일과 병원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직장을 고를 때 근무 여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저의 현재 근무 형태는 하루 15시간 근무를 서고, 이틀 휴무를 가진 다음 다시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사흘에 한 번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근무를 섰 때는 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고 휴무일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Q9.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도 일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정기원 교수님과 함께 차아름을 시작해 학교 후문에 있는 약초원 조성을 했고, 양영덕 교수님과 온라인 소식지 차팍인을 창간해 초대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손현순 교수님 연구실에서 약학연구입문과 심화실무실습을 하며 논문을 한 편 쓰는 기회를 얻었고요. 제7대 학생회에서는 미디어국장 맡았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보건의료정책 학회와 사진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Q10. 대학 시절 꿈꾸었던 일과 지금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재학 중에는 제약회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병원으로 취직을 해서 인생이 꼭 예상대로만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들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도 모든 분야를 두루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회에 나오고 보니 그 말씀이 뒤늦게 실감이 났습니다.

Q11. 졸업생으로서 느끼는 차 의과대학의 장점이나 학교에서 이런 점을 배워서 좋았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라는 것이 참 큰 장점이라는 것을 졸업 후에야 느꼈습니다. 제자 된 입장에서 교수님들을 평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일하다 오신 분야에 따라 교수님들께서 가지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12.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병원 약사로서 정구적인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 기회를 허투루 날려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에서는 정신-신경계 약물은 다 빼고 다루었는데, 차기작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과 협업해서 그런 약들만 다루는 책을 준비 중이에요.

그렇게 작은 분야들이 계속 모여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3. 지금 하고 계신 직업군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식소사변(食少事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나온 표현인데,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으면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글쓰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어두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없습니다. 글쓰기를 업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문장을 예쁘게 쓰는 것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저는 많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서울 나갈 때 빨간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타서 그 시간에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Q14.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간 약초원을 가꾸며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해에는 대단한 성과를 내기보다는 미래의 큰 성취를 위해 실력을 기르고, 땅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성과를 내진 못하더라도 후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선배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09학번 조요한 선배님 근무약사



Q1. 현재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있습니다. 안과, 내과, 외과, 정신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거의 모든 진료과가 있는 메디컬 빌딩에 소재한 약국이며,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조제 및 투약, 건강 및 약물 상담과 마약류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Q2. 약국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졸업 전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했어요. 제약회사 인턴도 해보고, 방학마다 약학연구입문으로 실험실 생활도 했었죠. 군복무 중에는 군병원 약제과에도 있었고, 제약회사도 한번 가고 싶어 면접도 봤었어요. 군복무기간이 채용시작일과 겹치는 바람에 입사는 못 했지만, 그런 고민에 비하면 진로 결정은 간단했어요. 제대 후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 사이 잠시 약국에서 일주일간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그 약국에서 4년차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건강의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상담 등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약국 약사가 제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말했듯 거의 모든 진료과를 담당하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를 접할 수가 있었죠. 단순히 조제와 투약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과 상담할 수 있고, 다양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드릴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다고 보니, 약사회에서 열리는 강의나 관

련 공부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Q3. 이 실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어떤 역량과 소양이 필요한가요?

어느 직장에 가도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다른 직종과 다르게 근무약사는 대개 처방 건수에 맞게 고용되기 때문에, 결근하는 순간 약국은 마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약국 운영을 위해 성실한 근무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꼼꼼함이에요. 옆질러진 물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주위 답을 수 있어도, 오 투약한 의약품은 환자가 복용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되죠. 조제된 약이 단순한 실수라도 90일 등의 장기처방의 경우 상태가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쁜 순간에서도 조제된 약을 꼼꼼히 검수하려는 평정심과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처방전 검토를 해서 미처 발견 못한 의사의 처방오류도 잡아낼 수 있는 세밀함이 약사의 필수 덕목이죠.

세 번째는 주인의식이라 생각해요. 비록 근무 약사지만, 내가 약국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환자가 들어오면 인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근무에 힘이 들어도 약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꼼꼼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결국 약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죠.

Q4.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야근이 없고 퇴근 후에는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른 업종을 통틀어 근무 약사의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퇴근 후의 시간을 온전히 저만의

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여가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외국어나 새로운 약기를 배워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 일본어 회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수업 듣는 직장인들이 야근과 회식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것을 보면서, 퇴근 후 일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근무시간을 줄이고 파트약사를 한다면, 해외여행도 자주 갈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지낸다면 다른 쪽으로의 겸직도 가능하답니다.

단점이라면 직장동료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회사나 병원에 다니면서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사동기들과 그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데, 약국은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 본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동료가 부족하죠. 그래서 대학동기와 선후배가 그렇게 소중한답니다. 미래의 삶이 되고 피가 되는 사람들이니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세요! :))

Q5. 후배 장학금 기부를 약속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약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죠. 해외탐방도 지원 받았고요. 당시에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원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고, 안 그래도 작년부터 후원하고 싶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아리였던 대학원 다

09학번 조요한 선배님



나는 후배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알려줘서 큰 고민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금액은 약소하지만 이로 인해 후배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Q6.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보다는 이것저것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타입의 학생이었어요. 자취할 당시 대부분 송우리에 거주했는데 저는 대진대 근처에서 했었고, 다들 버스 타고 다닐 때 저는 자전거 타고 통학했었죠. 댄스 동아리인 '요약정리'랑 기독교 소모임인 '하늘소망'도 만들었는데, 약학과 최초로 동아리를 만들었을 땐, 저에게는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저에게 댄스라는 분야는 너무나 생소했었고, 당시엔 공부량이 많은 약학과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죠. 동기들은 시험공부 하러 도서관에 가는데, 한 명씩 붙잡고 한 시간만 같이 연습하자고 설득했었죠. 시험 당일에도 공연준비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춤 연습을 하고 시험 보러 간 기억이 생생하네요. ^^ 그렇게 시작한 동아리가 대회에 나가서 1등 상금도 받고, 행복해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는 동시에 6학년이 되어 그 열정을 국시 준비에 쏟다 보니 합격률이 절반도 안 되었던 첫 졸업시험 합격과 함께 약사국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

Q7. 졸업생으로서 느끼는 차대의 장점이나 학교에서 이런 점을 배워서 좋았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차대의 장점은 학년 당 40여 명의 적은 학생 수에도 양질의 수업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PEET 반영을 적게 하는 대학에서 약사국가시험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상의 수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방증해주는 것이죠. 인원이 많은 약대는 여러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동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졸업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에 빠져도 아무 관심도 없죠. 그러나 차대에서는 선후배는 물론 약학연구입문이나 지도교수 모임 등을 통해 졸업생들까지 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학생들은 필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보다 발표 수업도 하면서 질문도 주고받으며 자기 생각을 얘기해볼 기회가 많다 보니 내용도 기억에 많이 남게 되었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긴장하지 않고 의견을 나타낼 기회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8. 지금 하고 계신 직업군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 '10년 이상을 볼 것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약사 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직장생활에 적응하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싫어 제2의 선

택으로 약국 선택을 해요. 결국 언젠지 그만두고 약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치열하게 경쟁에 뛰어들어 끝까지 버텨서 최고가 될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런 마음가짐으로 약국에 가더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로서 약국의 약사가 되기보다, 그저 주어진 일만 겨우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되었던 병원이 되었던 간에 몇 년 취미 생활로 다닐 생각이라면 애초에 받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 때 최소 10년은 다닐 직장을 선택할 정도로 진로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10-2845-0914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Q9.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짜짜짜! 먼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0년 전 차대에 면접을 보고 캠퍼스 투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가 이렇게 변화될 진 상상도 못 했어요. 10년 동안 인프라 뿐만 아니라 내실까지 키워온 학교를 보니, 그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교수님과 재학생 및 학교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되길 소망하며, 졸업생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3학번 박민우 선배님

김애리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Q1. 현재 어느 연구실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약제학 연구실(김애리 교수님)에서 석사 마지막 학기를 밟고 있는 박민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생분해성 폴리머를 사용하여 Coacervate라는 제형을 통해 miRNA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Q2.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약회사 연구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약대 진학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들 약대 들어올 때 자기소개서에 졸업 후에 하고 있는 직무로 신약 개발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업무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졸업 후 진로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구직은 회사의 영업, RA, 학술, 마케팅 등 다른 부서와 달리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수입니다.

Q3. 대학원 진학에는 어떤 역량과 소양이 필요한가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학부 때 하는 실습은 저는 다소 수동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는 스스로 실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위해 논문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학부 때 실험을 해보고 “어? 나는 실험 손이 아니네?”라고 느꼈던 분들도 다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실험적인 스킬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이러한 요소들은 진학 후에 발전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병원이거나 약국에서 약사 업무를 하시면서 임상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기 계발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대학원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4. 대학원 진학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연구 주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조사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등 일련의 문제 해결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통해 원하는 연구를 회사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은 특별히 떠오르지 않네요.

Q5. 연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학회를 자주 갔었는데 제가 실험했던 내용을 포스터로 작성해서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진학 후에 처음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좋아했던 적이 있네요.

Q6. 학부생 시절에 약학연구입문을 하셨나요?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학연구입문을 하지 않았고 6학년 심화 실습으로 한 블록 동안 연구실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적인 부분보다도 실험실 구성원이 어떻게 어떠한 분위기인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어요. 이때의 경험이 긍정적이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길 희망하였습니다.

Q7.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한 것 같아요. 공부, 동아리, 대외활동 등 적당히 해서 후회 없이 대학 시절을 보낸 것 같네요. 지금도 학생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Q8. 대학 시절 꿈꾸었던 일과 지금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향해 반듯하게 가고 있네요. 대학

원을 졸업하고 내년 이 즈음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던 신약 개발이란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Q9.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앞으로의 목표 및 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바이오 제형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바이오 의약품 제형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싶어요.

Q10.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어도 선뜻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대 진학의 경우에는, 약학연구입문이나 심화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학원은 항상 여러분들께 열려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Q11.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축하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선후배님들 덕분에 즐거운 4년을 보냈기에 아직도 그때가 그리기도 합니다. 다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기 졸업생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2학번 이정환 선배님

제약회사 (종근당) 근무

Q1. 현재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2학번 이정환입니다. 저는 현재 종근당 기술연구소 제제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1월에 입사하여 조금씩 회사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제제연구는 제제연구실, 분석실, CTD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제연구실에서 저는 신약, 제네릭, 개량신약의 제제연구 및 scale-up 연구, 의약품 동등성 시험, 기타 공정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분석실에서는 원료 및 완제품의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분석법 연구, CTD실에서는 CTD자료, 허가 관련 서류 등의 작성, 관리하여 세 개의 연구실이 서로 연계되어 업무를 합니다.

Q2. 제약회사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교 때 실습을 하면서부터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었고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연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여 좀 더 효과적인 의약품을 만드는 일이 의미 있고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Q3. 이 실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어떤 역량과 소양이 필요한가요?

연구소는 실험이 기본이기 때문에 실험실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과 기기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부생 때 배우는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제제연구에는 학부 때 배우는 제제학 지식이 실제 업무에 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무에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약학, 분석학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개발을 위해 전임상, 임상, 의약품 동등성시험이 필수적이므로 약물동태학 지식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Q4. 이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종근당 제제연구실의 경우에는 신약, 제네릭, 개량신약의 예비제제설계(preformulation), 처방연구부터 전임상, 임상, 허가, 생산, 발매까지 후보물질 발굴 단계 이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들은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제연구실은 개발 기한이 존재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Q5. 약사면허를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면허 자체에서 오는 이점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약사수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약사이기 때문에 비약사 출신보다는 약에 관한 정보에 더 익숙하고 제약 산업 관련 업무에 적응하는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비약사 출신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Q6. 제약회사에서의 신약개발 분야는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가능한가요?

보통 대학원을 나온 석사, 박사 같은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연구쪽이고 그 외 개발, 임상, RA, 마케팅, 영업 같은 직무는 학사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Q7. 지금 하고 계신 직업군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학부생 때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미리 정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고 사실 직접 체험해보지 않는다면 적성에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보면서 관심이 가는 과목이 있다면 대학원에서 좀 더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구 특성상 생기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연구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후배님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막연히 걱정하거나 주변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도전해 보세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Q8.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10주년인 의미 있는 한 해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차팍대이를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이렇게 교지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전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 10년 동안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요즘 각자의 위치에서 공중보건에 힘쓰시는 선후배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후배님들, 남은 약대 생활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현재 생활에 즐겁게 열정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13학번 김주희 선배님

조혜영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Q1. 현재 어느 연구실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조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 4학기 진학 중인 김주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의약품 개발 과정 중 비임상 단계에서 약물동태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 중인 신약을 설치류(마우스/랫트) 또는 비설치류(토끼/비글독: 외부 업체 투여 후 검체 전달)에 투여한 후 얻어진 혈장 및 조직 검체를 분석(분석법 개발 및 검체 분석 직접 진행)한 후,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약물의 체내동태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얻어진 데이터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약물 거동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2.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학대학을 들어와서 가장 재밌게 공부한 과목이 조혜영 교수님의 약물동태학과 법규(약사법)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약물동태학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식약처 근무) 고민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조혜영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Q3. 대학원 진학에는 어떤 역량과 소양이 필요한가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대학원 진학에 특별한 역량과 소양이 필요하기보다는, 어떤 분야든지 궁금한 점이 많거나 해당 전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신 분이라면 대학원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식약처 등)이나 회사에 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드립니다.

Q4. 대학원 진학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원 진학의 장점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매일매일 조금씩 뭔가를 알아가는 것 같은 (물론 나 자신의 무지함에 절망할 때가 더 많지만) 느낌을 받으며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지적 성장에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항상 경제적, 정신적 자유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Q5. 연구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랩실에서 진행한 과제(연구)가 신약 개발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다수의 약동학 평가를 해주어서 최적의 제제비율을 찾은 회사가 저희가 드린 약동학 평가의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Licensing out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나, 잘못된 약동학 평가 자료를 가져오신 회사 분들에게 재실험을 통해 제대로 된 약동학 평가를 하여 해당 신약후보물질의 문제점을 알려드려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 설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때 내가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6. 학부생 시절에 약학연구입문을 하셨나요?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부생 시절 총 3회의 약학연구입문(이하 약연입)을 통해 실험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중 2회는 조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였고, 1회는 손현순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후배님들에게 약연입 제도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4주라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2번의 약연입과 심화실습(10주)을 조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여서,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어떤 것이며 내가 흥미를 갖는 분야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Q7.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앞으로의 목표 및 진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박사 졸업 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포닥 과정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해외 규제기관들은 어떻게 의약품 허가과정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안에 약물동태학 및 모델링&시뮬레이션 자료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부하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또 어떻게 재밌을지 고민하며 진로 설정을 할 것 같습니다.

Q8.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발전을 기쁘히 축하하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저희 학교가 10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수님들, 차약인들의 학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포천에서 항상 노력해주셨던 선배님들 후배님들 덕분에 학교가 매년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화를 가져오는 차약인의 일원임이 자랑스럽고,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빛나는 차약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환, 태소정,
박지수 기자

숫자로 알아보는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10주년

1. 숫자로 알아보는 차약인

14
약학과
교수님 수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는 서영거 학장님과 정기원 학과장님을 포함하여 14분의 교수님들께서 약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전인적 약학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한 분이 한 학년을 담당하는 ‘담임 교수제도’ 및 교수님 한 분당 한 학년 평균 3~4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지도 교수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주시며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213
누적 동문수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졸업생’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약사 선배님들은 모두 213명입니다. 11년도에 1기 선배님들이 처음으로 교실 문을 여신 뒤 6기까지의 선배님들께서 약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밟고 사회로 진출하셨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 계시며 후배들에게는 언제나 큰 용기와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항상 응원하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동문’이라는 끈끈한 인연으로 사회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차대 출신
약사가 치룬
첫 국가고시 회차

66

차팍인
TMI

‘차대 출신 1호 약사’ 선배님들께서는 ‘제66회 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하심으로써 약사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학교는 2020년까지 ‘6년 연속 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차약인의 행운의 숫자는 ‘6’인 걸까요?

169 재학생 수

차팍인
TMI

‘약사’라는 동일한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 중인 재학생은 모두 169명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는 직업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진로가 펼쳐져 있는 만큼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2. 숫자로 알아보는 차약

‘차대 약대’ 하면 든든한 선후배 및 동기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11개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서 끼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같이 땀을 흘리고 댄스 및 밴드 동아리 학생들은 공연을 개최하거나 ‘전국 약대생 축제’ 등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밖에 함께 종교활동을 진행하고 봉사를 다니며 학업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11

약학과 동아리 수

약초원 개원 3주년

3

2017년 9월 25일, 우리 학과의 자랑인 약초원이 포천캠퍼스에 개원하였습니다. 해당 약초원은 정기원 학과장님의 지도 아래 ‘차아름’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부생의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약초원에는 가시오가피, 감초 등을 포함한 6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약초원은 서로 다른 식물들이 어우러져 알록달록 꽃을 피우고 그 향을 맡고 새와 곤충들이 모이는 자연 내음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특히 ‘생약학’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약초원에 방문하여 천연 식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선보이는 약초원에 관심 있으시면 차아름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포천 캠퍼스-차바이오컴플렉스 직선거리

50.5 km

차 의과학대학교는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수업은 포천캠퍼스에서, 연구와 실습은 대부분 판교 캠퍼스라고도 불리는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포천 캠퍼스에서 최첨단 시설과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뽐내는 차바이오 컴플렉스까지의 직선거리(네이버 지도상)는 50.5km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지만 오고 가며 바뀌는 창밖 풍경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몸소 느끼기도 한답니다. 차바이오컴플렉스가 궁금하신 학부생은 ‘약학 연구 입문’을 신청하게 되면 판교에서의 실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5

3 학년 교실 호수

다들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과학관 105호!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한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업을 받는 장소입니다. 어색한 인사를 하며 주눅주눅 자리를 고르는 첫날이 기억에도 나지 않을 만큼 차약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교실은 까르르 웃음소리로 뒤덮인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동기애가 싹트는 과학관 105호는 학교생활 중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성연 기자



차약이에게 물었다!

약학과 10주년 기념 10문 10답

10 김초롱, 12 전성률, 13 박민우, 14 박찬섭, 15 최동현, 16 이유진, 17 최다빈, 18 이승연

1. 우리 학번의 장점을 자랑해주세요!

10 김초롱 우리 학번은 차의과학대 약대 최초로 선배를 두고 후배를 받는 학번입니다☺ 차대 약대의 태동 시절을 함께 일구며 교수님, 동기들, 선후배와 함께 가장 즐기며 놓고 공부했던 학번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12 전성률 매사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13 박민우 첫 번째로는 동기간의 끈끈함, 단결력이 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 평균 키(180이상)가 높았습니다. 저에겐 단점이었지만요. **15 최동현** 저희 학번은 다들 마음이 진짜 따뜻해요! 서운하고 아쉬운 일도 많을텐데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학교생활을 잘 보냈던 것 같네요 ㅎㅎ **16 이유진** 16학번의 장점은 긍정적인 성격과 활발함인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과 수많은 과제들에 힘들법도한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책임감이에요. 약대에서 가장 힘든 학년이 4학년이었는데 학업 외에도 여러 활동들까지 맡아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이거든요. 작년 한해 16학번 동기들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한 많은 활동들이 떠오르네요. **17 최다빈** 다들 성격이 동글동글하고, 마음이 여리고, 남을 잘 챙겨줍니다. **18 이승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3학년 생활을 즐기기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ㅎㅎ

2. 학교 다니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은?

10 김초롱 신입생 땀 학생회 활동과 과생활들, 고학번 때는 참여하던 외부 활동 등을 꾸준히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버스 시간 잘 맞추기!! 지금 후배들은 크게 와 닿지 않겠지만, 당시엔 학교로 오고 가는 버스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했답니다ㅠㅠ **12 전성률** 학생회장으로서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13 박민우** 통학이요. 포천 다니는 3년동안 한 학기빼고 항상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했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14 박찬섭**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던 학생회 활동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설 학교다 보니 기틀을 다져야 했던 부분이 많았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함께 활동했던 학생회 구성원들을 많이 고생시켰던 것 같아요. 특히 부학생회장이었던 준수는 잠 안자고 일했던 저 때문에 함께 밤을 많이 새우곤 했죠..^^;; 미안해 준수야. ㅎㅎ;; **15 최동현** 4학년 학생회를 할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전약제 기획을 맡았었는데 전국의 약대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는 가장 큰 행사를 맡았기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ㅎㅎ **16 이유진**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은 학과 활동과 전약협(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활동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일이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학과 활동으로는 학교 및 학과 행사들이 있었고 그 외에 학생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진행한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약협에서는 홍보국장을 맡아 행사 포스터 및 동영상, 이벤트 홍보물들을 제작하였습니다. **17 최다빈** 행복도서관 주최로 UCC콘테스트를 개최했었는데 그 공모전 영상을 제일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주일(?)정도를 편집만 하면서 지냈었어요. **18 이승연** 지난 학기엔 코로나 상황에 따른 학교의 공지를 기다리며 기숙사 입주를 위한 짐을 싣다 풀었다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과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소골의 대표메뉴!
계란말이와 제육볶음



선단숲
썬라떼가 맛있는 감성 카페



3. 아직도 생각나는 학교 앞 맛집은?

10 김초롱 초창기에 행사로 가장 많이 갔었을 솔뚜껍 삼겹살이요. 특출난 맛집은 아니지만, 재밌게 즐기던 시간이 많던 집이라 졸업 이후에 동기와 한번 무작정 찾아가 먹고 온 적도 있었어요. **12 전성률** 송추갈비탕이 양도 많고 마늘을 넣어먹으면 맛있었어요.

13 박민우 자주 시켜먹는 건 블랙홀이었고 자주 찾아가서 먹었던 건 수유리 우동.

14 박찬섭 네 곳이 생각나네요! 합격 후 처음 학교에 가서 부모님과 먹었던 '무봉리 순대국', 지금은 사라져서 아쉬운 이탈리아 레스토랑 '공간'. 동기였던 여자친구와 자주 방문했던 '스시나기!' 마지막으로 3년을 함께한 룸메들과 정~말 자주 배달시켜 먹던 '한상궁 족발'. 참 자주 갔던 곳이라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ㅎㅎ

15 최동현 포차이야기에서 먹었던 콩삼! 저도 13형들 쫓아서 처음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거기 사장님이 갈때마다 아들아들~하셔서 조금 몽클하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모두 아들아들~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ㅎㅎ 여하튼 포차이야기 콩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16 이유진** 가장 생각나는 곳은 선단숲입니다. 학교 후문에서 쭉 건너보면 나오는 조용한 카페에서 동기와 수다를 떨던 시간이 그리워요. 시험공부를 하기도 하고, 심심하면 산책겸 나가 음료 한 잔 케익 하나 하고 오던 순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썬라떼가 가장 많이 생각나네요. 휴무일을 몰라 허탕치고 돌아온 웃픈 기억도 2번이나 있어요.

17 최다빈 제 원픽은 담소골입니다. 담소골의 계란말이는 방학때도 생각나요.. 정말.. 아 지금도 먹고 싶다....

18 이승연 아직 학교를 1번밖에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아시는 맛집 많이 배워가고 싶어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 10 김초롱** 본격적인 진로계획과 함께 공부량도 많아져 마음이 무겁던 5학년 어느 날, 무작정 동기와 정동진행을 계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밤기차를 타고서도 조별과제를 챙겨가 해 둘 때까지 컵라면을 먹으며 과제를 끝낸 뒤, 떠오르는 해를 몽롱몽롱한 마음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교수님께 보내드렸어요.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당돌하게 결석을 말씀드리는 연락이었죠. "멋있다, 잘 보고 조심히 올라오라" 던 교수님의 답장이 기억납니다. 새로운 기운을 충전해 일상의 활력을 얻고 온 제자와,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믿어주신 교수님. 두 박자가 모두 떨어진 이 작은 에피소드가, 지나고 보니 제가 기억하는 약대시절의 낭만이 아닌가 싶어요. (아침을 먹고 산님과 물건너 오후 수업을 들으러 포천으로 다시 오던 기억도 나네요, 참으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놀던 시절입니다.)
- 12 전성률** 총애팀에서 골든벨을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13 박민우** 4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잠도 거의 안 자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눈병 난 거요. 평상시에 좀 잘할 걸. **14 박찬섭** White Coat Ceremony! 포천을 떠나기 직전의 아쉬움, 실습을 앞둔 설렘, 두려움, 약사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대한 부담감, 책임감 등.. 수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날이었어요. 이날 느꼈던 감정들은, 지금도 제가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등 좋은 약사이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15 최동현** 돌이켜보면 소소하게 재밌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시험기간 새벽에 동기들과 모여 허겁지겁 먹었던 컵라면이나, 시험이 아직 1주일이나 남았다면서 무사 진급을 기원하던 술자리 같은 소소한 일들이 기억에 남아요! **16 이유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려면 단연 1위는 전약제입니다 ^_^ 전날 미리 개최지에 내려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었거든요. 다음날 저희 학교 학생들과 마주친 순간,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힘들이 사르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생했던 기억보다는 학생들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계주에서 2등하는 모습, 학교 깃발을 들고 흔들던 모습, 아침에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네요.
- 17 최다빈** 동기들이랑 같이 차대 학과별 크레이지야케이드 게임대회에 나가서 1등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기들 최고~!
- 18 이승연** 1학기를 비대면수업으로 마치고 약학연구입문을 위해 차바کم에서 교수님들을 처음 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화면 속 교수님들을 처음으로 뵈게 되어 설레고 신기했습니다.

18학년 건대 번개모임



5. 좋았던 추억이 깃든 장소는 어디인가요?



- 10 김초롱** 당연히 학번 교실이요. 학번 교실에서 다 같이 수업 듣고 웃고 울고.. 통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마치 포천에 있는 또다른 제 방 같았던 곳입니다.
- 12 전성률** 동기들과 시험 끝나고 산정호수 놀러갔던 게 기억에 남네요.
- 13 박민우** 과학관 지하 일층 화장실? 거기 거울 앞에 서면 어깨 넓어 보여요.
- 15 최동현**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엔 면학관에 저희 과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선배님들과 술도 마시고 경비아저씨 몰래 손전등 켜고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췄던 것 같은데 뭔가 그때 그 신입생만의 바이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과방이 사라져서 너무 아쉬워요.
- 16 이유진** 좋았던 추억이 깃든 장소는 도서관 3층 행복카페예요. 시험기간에 동기와 서로 깨워주면서 밤새 공부하던 기억도 있고, 또 다양한 학교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추억이 많아요. 심지어 피플마켓 대회도 동기들 20명이 우르르 가서 맞췄던 적도 있습니다. ㅎㅎ
- 17 최다빈** 동기들이랑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기숙사입니다. 휴게실에서 배달도 시켜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18 이승연** 건대입구역에 있는 김부삼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ㅎㅎ 저희 학번이 코로나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했는데 건대 김부삼에서 번개모임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서요!

6. 가장 힘들었던 과목 /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 10 김초롱** 의약화학. 유기화학에 취약해서 많이 애먹었던 과목인데, 중간고사 시험성적을 받고 학기말에 정말 긴장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남니다... 교수님 졸업 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 전성률** 사회약학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건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 13 박민우** 약물치료학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좋아했던 과목입니다. 3, 4학년에 배웠던 약물이 어떤 질환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n차 치료제로 쓰이는 지 실질적인 응용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재밌게 들었습니다. **14 박찬섭** 누가 뭐라 해도 약물치료학! $\pi\pi$ 압도적인 양도 양이었지만, 가이드라인이 너무 안외워져서 국시준비 할 때도 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ㅎㅎ
- 15 최동현** 미생물학 진짜 힘들었어요..ㅋㅋㅋ 저도 DD의 늪에 빠진 적이 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국시준비하다보니 이렇게 효자과목이 되어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두시험 대충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pi\pi$ 그리고 약물학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ㅎㅎ 뭔가 찌으로 약대생 된 기분일까?! (이거 잘한 과목 아니고 좋아했던 과목 말하는 것 맞죠??^^) **16 이유진**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유기화학, 합성학입니다. 피트 준비할때도 유기기를 좋아했고 화학과 전공수업을 들을 때도 즐겁게 들었고요. 제가 타이핑보다 손글씨를 좋아해서 합성과정과 역합성 과정을 그리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꼬적꼬적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딱 알맞는 수업이었던 거죠. **17 최다빈** 확실히 "암기량"이 많은 과목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말하면서도 외우고 백지에도 써보고, 연관지어서 외워보고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었어요. **18 이승연** 구술시험으로 인해 매주 긴장해야 했던 미생물학 과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국약대생축제에 참여한 17학년





7.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10 김초롱** 제약회사 쪽으로 진로를 계획해서, 현재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2 전성률**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3 박민우** 차대 대학원 약제학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4 박찬섭** 현재는 조유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위 기간이 짧은 만큼 하루를 이틀처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 후배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환영합니다!
- 15 최동현** 지금은 마지막 실습 준비하면서 슬슬 국시공부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ㅎㅎ 과목이나 공부량을 보니까 쉽지 않긴 한데 어차피 국시는 합격!(어국합) 이라는 선배님들의 말을 굳게 믿고 있는 중입니다.
- 16 이유진** 2학기를 기다리며 동기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올 수 있었던 여행이었어요. 공장실습과 행정실습, 김애리교수님 랩실에서 약연입이 끝나고 나니 방학이 한 3일정도 남아있네요.
- 17 최다빈**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에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DIY 미니어처 하우스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 18 이승연** 개강해서 zoom / lms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서 슬퍼요ㅠ.ㅠ



8. 나에게 차대란?

10 김초롱 낭만 - 사회원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고 싶은 공부와 하고 싶은 활동들을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던 인생의 주요 페이지 같아요. **12 전성률** 감사하고 애ত한 곳이에요. 마음의 고향이랄까요. **13 박민우** 지금 6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족같은 느낌이에요. **15 최동현** 마음의 고향!! 밖에서 실습하고 동기들 만나면 괜히 학교 얘기만 해도 푸근하고 마음이 편해져요. ㅎㅎ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16 이유진** "새로운 학교"인 것 같아요. 모든걸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작점 같은 곳인거죠. 좋았던 추억, 안 좋았던 추억, 슬픈 추억, 기쁜 추억 모두 새로웠고 그 순간마다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제 2의 인생이 펼쳐지는 출발선을 새롭게 긋는 장소가 차대라고 생각해요. **17 최다빈** Into the unknown이다. 차대에 와서 좋은 교수님, 선배님, 후배님, 동기들도 만나고 학생회장 직무도 맡아보고 제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들을 선물해주었어요. 앞으로도 어떤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고 있어서 미지의 세계라고 표현할게요~

과학관 전경과 해솔마당 위의 학생들의 모습



9.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 10 김초롱**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낭만의 4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나를 지탱하는 정신적 토양이 됩니다, 늘 때도 공부할 때도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 12 전성률** 교수님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피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편법이나 쉬운 방식을 버리고 정석대로 공부하세요.
- 13 박민우** 돌이켜보면 학부 시절이 제일 좋았어요. 졸업하면 동기들 자주 못 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14 박찬섭** 학교에서 경험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약사라는 직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갓 졸업한 졸업생이고 많은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당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 약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기르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생활의 모든 부분에 성실히 임하셔서, 사회의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 15 최동현** 학교 다닐땐 공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많이 배우고 계신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얘기해보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ㅎㅎ 지금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하이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6 이유진** 이렇게 놀아도 싶냐? 싶을 정도로 열심히 즐기세요 여러분!! ㄷ(ò_ó_~)ㄹ 다양한 행사나 대외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인턴/약연입 등 학교 커리큘럼에도 참여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안 올 순간들이기에 충분히 즐기시길 바래요. 놀 때도 때가 있는 것처럼 전 차대에서의 4년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맘껏 놀아라" 시간인 것 같아요.
- 17 최다빈** <조언은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 그 동안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담소골 계란말이 같이 먹어요~

10.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 10 김초롱** 저는 개인적으로 10주년 기념호 10문 10답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같아요. 10년의 지성과 추억이 쌓인 지금의 우리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 **12 전성률** 사회에서 약사를 칭찬하며 '아, 그 친구 참 잘하던데 차대였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13 박민우** 국가고시 합격 100% 유지하고 있는 거요. 후배님들 앞으로도 잘 이어나가길 바랄게요.
- 14 박찬섭** 다른 학교 학생들이 교수님들과의 친밀감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구요.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관심도 참 많으시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주시는 분들이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 차약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5 최동현** 선배님들께서 사회에서 치열하게 일해주셔서 그런지 좋은 이미지로 소개될 때 자랑스러워요! 그럴때마다 저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구요! **16 이유진** 선배님들이 나아가는 길과 얻으시는 성과들을 볼 때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국시 100% 통과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국가고시를 치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고사장에 2번 갔었는데, 선배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찡하고 몽클하더라고요. 힘들게 공부한 만큼 그 결과를 100% 통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17 최다빈**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차대 약대 파이팅~~
- 18 이승연** 1학기 간식행사에서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서 기프트콘으로 간식을 찾을 때, 그리고 간식 선택권이 무려 4가지나 주어졌을때! 차대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ㅎㅎ 너무 사소하지만,,,) <“

포천은 어디에나 눈이 있다

Pharmparazzi

10년의 발자취 - 차약인의 모습



차약 1기 (09학번)



차약 2기 (10학번)



차약 3기 (11학번)



차약 4기 (12학번)



차약 5기 (13학번)



차약 6기 (14학번)



차약 7기 (15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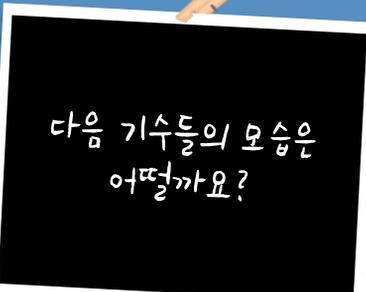
차약 8기 (16학번)



차약 9기 (17학번)



차약 10기 (18학번)



다음 기수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10년 동안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인 동기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만나게
될 차약이들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김태환 기자

제 1 회

차 팜 인 백 일 장



제 1회 차팜인 백일장의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소개해 드릴 작품은 약학대학 학생회 샤르망 주관으로 개최된 차약 10주년 기념 차팜데이 로고 공모전과 약학대학 온라인 소식지 차팜인 주관으로 개최된 차팜인 특별호 기념 백일장(빈칸 채우기 부문, 이행시 부문, 에세이 부문)의 수상작입니다. 차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된 로고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은 차약 10주년 기념 로고로 선정됨과 동시에 차팜데이 굿즈에 삽입되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백일장에서는 차약인의 재치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1. 학생회 샤르망 로고공모전 우수작 (feat. **CHA PHARM IN**)



1등 17학번 최다빈

1. 약학과 대표성 : 아래의 collage of pharmacy를 통해 약학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로고의 대중성 : 한 눈에 10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10주년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로고는 티셔츠나 다른 굿즈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3. 관련성과 적절성 : 10주년 기념 포함,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독창성 : 앞으로 20년, 30년이 되어서 앞의 1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공식 색상으로 잡았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5. 의미는 드러나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로고를 구상하였습니다.



2등 18학번 이주현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을 의미하는 CHA PHARM에서 알파벳 C와 P를 이용해 약의 모양을 만들어 한눈에 약학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교의 마크, 차약이 등에서도 사용되는 노란색을 대표적으로 사용했으나 다른 색상의 로고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3등 17학번 한승훈

1. 2011-2020 (차약대의 설립년도 및 10주년인 올해까지의 기간)
2. 신전식배치 (학문의 전당으로써의 이미지)
3. 10th (10주년 의미)
4. 10에서 0을 보면 3단 알약식 캡슐모양
5. 10에서 0을 가로로 보면 CHA를 표현 (색상별 한글자씩, 차의과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공식로고에서 사용중인 배색 남색(R31, G71, B108) / 주황 (R224, G125, B76) / 노랑(R235, G193, B81)
7. cha pharm anniversary (차의과대학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글자로도 표시했으며 이를 보고 로고를 다시 볼 경우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차약이들에게 차대 약학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Question. 나에게 있어 차대 약학과는 [] 다!

나에게 있어 차대 약학과는 [마음의 안식처] 다!

4학년 최수빈 학우 & 김성미 학우*

매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차약이로서의 평범한 나날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보다 자주 보던 차약이 동기들, 가끔 잉? 하게 만드는 개그를 던지시던 교수님들, 맛없다고들 하지만 우리만 잘 먹었던 수강현까지... 요즘 더욱 그리워지는 차약이의 평범한 나날들이 무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4학년 최수빈 학우)

* 두 분이 동일한 답을 응모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 차대 약학과는 [민머리] 다!

3학년 안준영 학우

팔방미인 같은 매력에서 헤어(hair)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차대 약학과는 [정우성] 이다!

5학년 김상욱 학우

- ① 늘 새롭고 짜릿하니까 ② 정 많은
우 리 차약이들 덕분에
성 공한 '나' 라서

나에게 있어 차대 약학과는 [로또] 다!

5학년 김선우 학우

피트 수험생활로 힘들었던 저에게 차대 약학과 합격은 마치 로또 당첨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대 합격 때문에 로또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약대 합격보다도 약대에 와서 만나게 된 동기들, 선배님들, 교수님들이 저에게는 로또였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맞는, 배울 점이 많은 지인을 만나는 것이 힘든 일임을 느꼈습니다. 차대 약학과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자의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꿈을 구체화하고 어떤 약사가 되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더불어 약대에 와서 한 학생회, 동아리 등 교내활동과 동기들과 함께한 많은 여행들, 이 추억들은 저에게 모두 선물이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차대 약학과를 제 인생에 있어 로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 제 1회 차팜인 백일장 이 행 시 부 문 수상작

차: 차츰차츰
약: 약학과와 fall in love
- 3학년 안준영 학우

차: 차 한잔 해요, 우리.
약: 약간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 잠깐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 4학년 민은기 학우

차: 차근차근 강의를 듣다보면
약: 약학지식이 언젠가는 쌓이겠죠?π
- 4학년 김성미 학우

차: 차인표
약: 약점. 신애라
- 5학년 김상욱 학우

차: 차약은
약: 약대 중 최고
- 5학년 태소정 학우

차: 차약이들!
약: 약속하자! 우리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거야
꼭♥
- 4학년 최수빈 학우

차: 차대 약학과 설립 10주년 축하합니다! 차약이들~ ♥
약: 약속하자 10년 뒤에는 후배들한테 약학관 새로 하나 지어주기로

차: 차대 약학과 16학번 동기들아!
약: 약대 마지막 포천라이프인데 학교도 못가고 만나지 못해 아쉬워ππ
코로나 잠잠해지면 나중에라도 다같이 동기여행 가자 ♥
- 5학년 김선우 학우

4. 제 1회 차팜인 백일장 에 세 이 부 문 수상작

4학년 민은기

나의 차대 약학과 생활을 돌아보면 “도전”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입학한 이후부터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옛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약속 잡기, 교내 행사에 참여해보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관객이 천 명이 넘는 전약제 무대에서 공연해보기, 다른 학교 다른 학과 사람들과 공모전 같이 해보기, 혼자 여행 가보기, 학생회 활동하기,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 방학 한 달간 약학연구입문을 하면서 연구 활동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용기 내어 도전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왜 용기씩이나 필요해?”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에 있어서는 모든 활동이 다 의미가 있고 깨달은 바가 많았다. 도전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뿌듯하고 이로써 스스로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도전인 것이다.

과거의 나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 흔히 말하는 집을 너무 사랑하는 ‘집순이’였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해도 체력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불리 도전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시도도 해보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랬던 나는 차대 약학과에 입학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변에 본받고 싶은 교수님들, 친구들이 많아졌고 이들을 보면서 나도 조금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체력도 확실히 좋아져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도 쉽게 지치지 않았다. 지금은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나면 발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또한, 가장 달라진 점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한 계단씩 성장하며 배워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요즘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도전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 앞으로의 나는 지금보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한 단계씩 나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으면 한다.

〈제약회사 한독 하게 인턴십을 돌아보며〉

4학년 최성웅

7월 9일부터 8월 5일 동안 20일간 활동하며 느낀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지원서에는 3가지 항목에 대해 300자 내외로 써야 하는데, 기말고사와 겹치면서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약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인턴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나 진로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모집 부서로는 의학실, 교육팀, ETC마케팅, OTC마케팅이 있습니다. 인턴십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각 부서의 인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각 부서의 임원진과 회사 대표님께서 강연을 통해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나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나 열정은 그 높은 자리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까지도 인턴십 하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고 약학비전세미나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부터 인턴 각자에게 배정된 부서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한 달간 근무했던 부서는 OTC 마케팅이었고, 같이 인턴을 시작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학실은 제약회사마다, 의학실 각 팀마다, 천차만별의 업무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독에서는 병원과 제약회사의 중간다리 역할을 의학실이 하며 희귀질환의 논문데이터를 보는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양쪽의 의견이 이곳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팀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 관련 모든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약학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ETC마케팅과 OTC마케팅은 각자 맡은 담당 제품의 특성상, 마케팅 대상이나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ETC는 의사가 주요 마케팅 대상이었고, OTC는 약사나 소비자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ETC부서는 마케팅 관련 업무보다는 의약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와 커뮤니케이션할 일이 많습니다. 반면 OTC는 제품 광고를 접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를 이루다 보니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1학기가 끝난 지금,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텐텐〉

3학년 원재웅

입학 후 약학과에 들어와서 요즘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종종 생각하곤 한다. 너무 이른 고민일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터무니없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알지도 못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참 생각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질 즈음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굼직굼직한 과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오래됐지만 사소한 기억들이 있다. 별것 아닌 사소한 기억을 다시 돌아보면 생각보다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나에게서는 약국에 갔을 때 주는 사탕인 ‘텐텐’이 그런 기분을 들게 한다.

대략 막 초등학교를 마칠 즈음,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힘든 시기였고 어머니는 당신의 자식이 아파 자주 가던 동네 약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다. 어른들끼리 깊은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부부 약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 밖에서 잠시 동생과 놀다 오라고 손에 텐텐을 쥐여 주셨다. 주먹에 쥐어진 빨간 사탕을 한 개씩 입안에 넣고 골목에서 한참을 있다 보면 어느새 눈이 부어 있던 어머니가 나오셨다. 집에 가는 길은 길었다. 어렸던 아이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입속에 남아있던 약국 사탕의 씹쓰레한 맛 속에서 사라진 단맛을 찾았다.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느낄 수 있었던 단맛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 힘들던 어린아이에게 위안의 손길이었다. 그 단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 이후로도 특별히 어떤 일이 없어도 하룻길에 종종 인사를 한 번씩 하면 약사님은 텐텐을 주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지나 텐텐에서 비타오백을 선호하기 시작할 때 즈음 사정이 생겨 우리 집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고 한참이나 그곳은 가지 못하였다.

나이를 차츰차츰 먹게 된다면 나는 어떤 순간을 추억하며 살아갈까. 처음 이곳 약대 합격증을 받은 순간이나,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 놀던 즐거운 순간일까. 그 순간들은 강렬했지만 당연해져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작고 아무렇지 않은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기억에 남을 때가 있다. ‘텐텐’처럼 말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사소한 기억들이 의외로 인생의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곤 한다. 내 기억 속의 약사님과 정확히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겠지만 살면서 그런 사소하고 소중한 기억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인생을 이 학교에서 찾고 싶다.

앞으로도 색다른 백일장과 공모전을 통하여 차약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chapharmin@naver.com

차약 앙케이트

10주년 기념 별별 시상식



해바라기상

연애하면 제일 사랑꾼일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50%
해바라기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하하 행복하게 연애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조용진



28%
감사합니다 ㅎㅎ 더 예쁘게 연애할게요~~

17 배민재



34%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되는 날도 오네요~

16 유영운



25%
부끄럽네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15 임수환



모범시민상

이번 학기에 집콕을 제일 잘 했을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25%
코로나 종결을 위해 우리 모두 집콕러가 되어봐요.X

18 이승원



28%
질리네요.ㅠㅠ 집콕 탈출하게 놀 때 저 좀 불러주세요.

17 안재민



71%
모범 시민상 감사합니다:) 집콕을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슬프지만 질병관리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조금만 꾹 참고 버텨서 코로나를 극복해봅시다!

16 안현빈

이슬만먹상

술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동기는 누구인가요?



21%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8 서동오



23%
코로나로 인해 동기, 선후배들과 만날 기회가 적은데 코로나 종식 후 함께 안전한 술자리 가졌으면 합니다:)

17 김선주



30%
앞으로도 이슬요령으로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16 김지수



34%
끝까지 마시면 계산은 제가 할게요. ^^

15 최동현

차슬랭 스타상

가장 요리를 잘 하실 것 같은 교수님은 누구인가요?



내가 이런 이미지에 가까움?
(편의점 도시락 먹고 사는 우리 아들이 웃고 있네요^^)
이참에 버킷리스트 하나 추가.
직접 요리해서 제자들과 파티하기!
그런 날이 오거든, 많이들 불러 오세요.

손현순 교수님



ㅎㅎ 우짜지 내가 할 줄 아는 요리는 라면, 짜파게티 밖에 없는데

양영덕 교수님

그때는 그랬지

Latte는 말이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의 캠퍼스 생활도 09학번 선배들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고학번은 추억에 잠기고 저학번은 재미로 보는 "그때는 그랬지" 코너입니다!

I. 대학생들의 꽃, 캠퍼스

교실

캠퍼스 건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것만 같은데요, 어떤 건물이 언제 생겼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듣는 공간인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이 비교적 초기에 지어지긴 했지만 11년 10월에 준공된 건물이라 차약 1기의 입학과 7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야외수업? 땡! 그전까지는 모두가 면학관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과도, 학생도 많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캠퍼스에서 가장 높고 멋있는 건물인 미래관입니다. 약학과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양 강의 수강이나 학생지원처 방문을 위해 종종 찾는 곳이죠.

미래관은 13년 8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예전 학교 뉴스를 찾아 보면 건물 이름을 공모받는 이벤트도 있었더라구요.

기숙사



'구기숙사' 라고도 불리는 상록학사와 청운학사입니다. 해룡학사는 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이 때는 이 두 건물이 유일한 기숙사동 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신기숙사, 해룡학사는 12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퀄리티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수강현도 이 때 함께 생겼습니다.

II. 학생들의 발, 대중교통

차의과학대학교는 빈말로라도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기에는 힘든 위치에 있죠.
 많은 학생들이 종종 불만을 토로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B 통학버스

현재도 운행하고 있는 학교 통학버스입니다.

지금은 무려 6개의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14년 기준으로는 2개의 노선만 존재했네요.



G 8

지금의 62번 역할을 하는, 차대와 송우리를 잇는 버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시간에 1대라는 극악의 배차간격을 자랑했다고 하네요. 흑흑, 라떼는 말이야...



G 88

2012년에 신설된 버스로, 송우리뿐 아니라 의정부까지도 운행하여(현재는 송우리가 종점) 많이 탔던 버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1시간에 1대 오는 버스라 배차간격이 아쉽네요.



G 62

차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아닐까 감히 말해봅니다. 송우리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인데요, 13년 4월에 차대가 노선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62가 송우리 대표 노선으로 자리 잡으며 8번과 88번 버스는 차대를 노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R 3500

지하철 7호선, 6호선, 2호선으로 연결되는 3500번 버스입니다.

건국대학교 앞으로 놀러갈 때뿐만 아니라 노원 학생들이 수업이 일찍 마친 날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 이 버스는 14년 8월에 배치되었다고 하네요.



R G1300

3006이 생기기 전 잠실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62번을 타고 양주에서 내려 G1300에 오르면 금세 잠실에 도착해 있곤 했는데요. 요즘은 3006의 기세에 밀려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년 4월에 배치된, 비교적 신상 버스입니다.

R 3006

누군가는 감히 혁명이라 일컫는 송우리에서 잠실로 운행하는 3006번 버스입니다. 이 버스의 개통으로 잠실 부근 학생들은 통학이 정말 편리해졌는데요! 62와 3006의 배차간격이 잘 맞으면 1시간 만에 잠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19년 9월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III.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대, 간식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특히 공부량이 많은 약대는 간식과 야식이 필수품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학번 분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 있는 해룡슈퍼입니다. 카페 아미고스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62 타면 되지 않나, 생각하신 분들은 2번을 복습하고 와주세요! 62는 2013년에 생겼답니다. 그 전 선배들은 해룡슈퍼까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갔다고 합니다. 해룡슈퍼로 향하는 차약 원정대가 도로에서 퇴근하는 교수님과 종종 마주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모 어플리케이션의 표어처럼 한국은 가히 배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차대도 예외는 아니라 야식으로 배달음식을 종종 시켜먹었다고 합니다.



GS25

학교 정문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
CU에 물건이 없거나 단렸을 경우 학생들이 종종 이용합니다.

CU

면학관에 위치한 교내 편의점입니다.
시험기간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동이 나는 곳이라 간식을 위해서는 빠른 몸놀림이 필수입니다!

담소골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주점입니다. 특히 기숙사생들이 번개로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인기 메뉴는 김치전에 치즈 추가!

ToPres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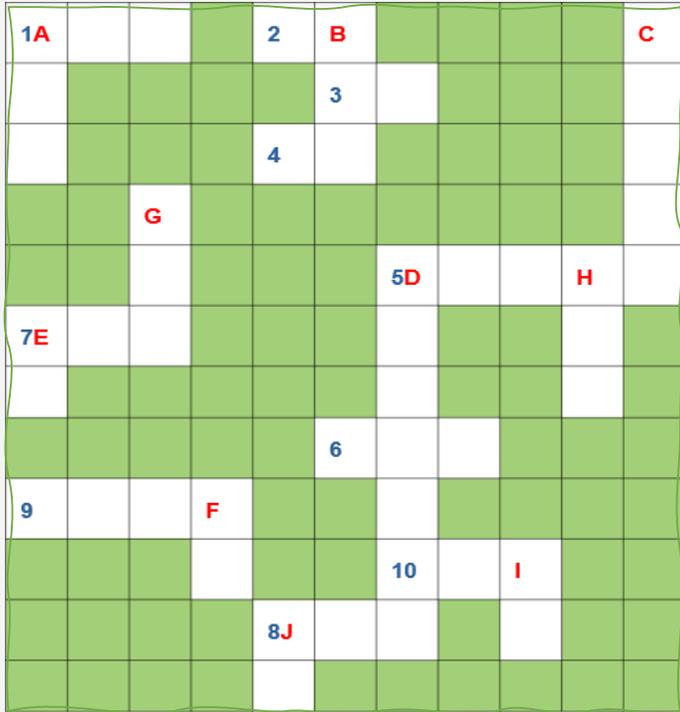
No.1 FRESH COFFEE

가장 최근, 17년에 생긴 곳입니다. 교내에서 프랜차이즈 음료를 맛볼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학생회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10년간 차약인의 캠퍼스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여전히 통학이 힘들긴 하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목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궁금합니다. 10년 후 약학과 20주년에는 차약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는 그랬지’ 코너를 마무리 합니다.

10주년 기념 십자말풀이 & 퀴즈

십자말풀이



퀴즈

- 1) 제 2회 차팜데이의 대상 경품은?
(힌트: 2018년 창간호 참고)
- 2) 차팜인 지도교수님 성함은?
- 3) 차팜인 1대 편집장 선배님의 성함은?
- 4) 차의과학대 약대의 교육목표 4가지는
[1. 2. 3. 4.] 약학인 양성이다. (힌트: 약대 홈페이지)
- 5) 차팜인의 창간호는 < > 년 3월호 이다.
- 6) 결핵을 유발하는 < > 는
그람양성간균이며 Actinobacteria에 속한다.
- 7) 제 8대 학생회 이름은?
- 8)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등산동아리의 정식 명칭은?
- 9)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댄스동아리의 정식 명칭은?
- 10) Chloramphenicol은 < > s 리보솜을 억제한다.

가로

1.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교지 명칭은 무엇일까요?
2.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2020학년도 신입생 수는 몇 명일까요?
(힌트: 약학과 홈페이지)
3.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1기 신입생 수는 몇 명일까요?
(힌트: 약학과 홈페이지)
4.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는 올해로 몇 주년을 맞이했을까요?
5. 역(逆)유토피아라고도 하며,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된 암울한 미래를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차팜인 2020년 3월호)
6.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5학년 학생들은 실무실습을 나가기 전 이 행사에서 전문 약사로서 갖추어야 할 조항들을 선서합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출입말로 답해주세요.)
7. 차의과학대학교 교내에는 포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8.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의 농구동아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9. 차의과학대학교 과학관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0.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구절이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소설 제목은 무엇일까요?

세로

- A. 차의과학대학교 제 1대 총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힌트: 학교 홈페이지)
- B. 차의과학대학교의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000]입니다.
- C. 2019년 6월, 미래관에서 어떤 제약회사 대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제약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차팜인 2020년 3월호)
- D. 약학대학 학생들은 실무실습을 나가기 전 이 선서를 합니다. 약학서 'De Materia Medica'의 저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E. 간 아래에 위치하며 쓸개즙을 저장하는 소화기관은 무엇일까요?
- F.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대사성질환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 G. 척추동물의 머리뼈를 통칭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 H.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남녀 주인공은 이곳의 '두오모 성당'에서 재회합니다. 이탈리아 중북부의 위치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힌트: 차팜인 2020년 3월호)
- I. 시력을 보정하거나 먼지, 바람 등의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눈에 착용하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 J. 물결의 모양 또는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모양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음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안을 <차팜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태환, 박지수, 태소정 기자 / chapharmin@naver.com

편집부의 말



김태환 편집장

이번 6호는 차대 약대 설립 10주년 기념 특별호로 인사드립니다. 차약인들이 걸어온 10년의 발자취는 고난과 격동, 그리고 극복과 성장의 드라마였습니다. 지면에 그 모든 것을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지나간 역사의 잔향에서 저희가 느꼈던 짜릿한 전율을 최대한 전달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년의 역사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또 기록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차대 약대 구성원들께 이 지면을 빌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약대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교지로 정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중책을 위해 함께 고생해주고 따라와 준 차팜인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호 편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편집부의 펜촉은 여기서 잠시 마르겠지만 10년의 기록은 보존되고 계속해서 읽혀 그 가치를 더욱 높이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운 팀장

안녕하세요, 차팜인 16학번 정영운입니다. 이번호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호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차의과학대학교 약대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호이고 저희 차팜인이 covid-19 유행 와중에 취재부터 발행까지 진행한 호이기도 하거든요. 비대면이라는 한계에도 풍부한 내용을 담기위해 노력하신 차팜인 구성원과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해보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참 뿌듯하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차대 약대의 역사를 더듬어가며 알게된 새로운 사실들도 많구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약인 모두가 이번 호를 읽으며 과에 대한 자부심을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주년에는 더 발전해 있을 차대 약대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원 팀장

안녕하세요 16학번 전상원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밖에 돌아다니기 눈치 보이고 힘든 시기입니다. 학교에 가서 다양한 추억거리를 남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요. 이번 10주년 기념호를 작성하며 차대의 과거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은혜 팀장

안녕하세요, 차팜인 디자인 팀을 담당하고 있는 16학번 김은혜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벌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주년 기념호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써주신 모든 차팜인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담당 기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준 저희 팀원들에게도 너무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10주년 기념호를 읽는 여러분에게 재미와 감동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차팜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태소정

10주년 특별호를 제작하면서 우리 약대의 10년 동안의 역사와 추억들을 찾아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 즐거운 캠퍼스라이프를 꿈꾸셨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많으시죠? 저도 마지막 포천라이프를 집에서 보내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동기들과의 추억도 만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생활을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다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차대 약대 1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의 앞날 또한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차팜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성연



이번 차팜인 특별 호에는 10년 동안의 우리 약대 이야기를 소중히 담았습니다. 두 손을 짝 펴서 학과를 소개할 수 있는 해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의 추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날들은 교수님, 동기 그리고 선배님들께 여쭙보며 모두의 힘을 합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옆 돌돌 돌아가던 선풍기만큼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속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차팜인도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주

차팜인으로서 기사를 제작하면서 차약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차약인들과 소통하면서 모두에게 차약인의 일상과 발자취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에게 학교의 소식지로서, 재학생과 교수님들에게는 학교의 추억의 한 페이지로서,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는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는 해답지로서 차팜인은 앞으로도 꼭 계속될 것입니다. 차약인들, 꽃길만 걸으시고 있으면 차팜인이 인터뷰하러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차팜인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지수



안녕하세요. 차팜인 편집위원 17학번 박지수입니다. 약대인들의 소통공간인 '차팜인'의 일원으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10주년 특별호를 준비하면서,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비대면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었고, 차대 약대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연함과 부드러움은 생명이고, 경직되고 딱딱한 것은 죽음과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팜인을 통한 끊임없는 소통이 차대 약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윤정

10주년 기념호인 만큼 우리 약대가 지나온 10년 동안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읽으시는 분들께도 보인다면 좋겠네요. :) 경험하지 못했던 때의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집에만 있어 답답한 이 시기에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재밌게 읽어주시고, 앞으로도 차팜인은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주년 축하합니다~!

원재웅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를 제작한다는 이야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분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1인분의 몫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도움을 주신 분들만 아니라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하나 더 올립니다. 특별호라는 의미에 걸맞게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못했던 상황에서 약대에 온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모두 건강하게 마스크 없이 뵈었으면 하네요.



신민철

이번에 처음으로 편집을 맡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10주년 호라서 더욱 뜻 깊은 것 같아요. 신입생으로서 알지 못했던, 우리 학교의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어요. 차대의 역사가 쌓여가고 있는 만큼 저도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겨지고 싶습니다! 다들 10주년 행사로 여러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셨지만 마음만큼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차대 여러분들과 차팜인 분들 모두 힘든 시기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6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 의과학 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농협 351-0013-3604-63 (예금주: 전상원)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7143-5568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김태환
chapharmin@naver.com / 010-7143-5568